



## 새마을문고 터줏대감 된 문학소녀

22년째 봉사 중인 대연1동 새마을문고 이덕순 부회장

대연1동 썬지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벽면 가득 천장까지 꽉 찬 책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작은 공간 안에 자리 잡은 책들을 보느라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 보면 도서관 입구 책상에 앉아 방문객들의 안내를 돕고 있는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친절한 눈빛으로 방문객들을 바라봐주는 그녀는 대연1동 새마을문고 이덕순 부회장이다.

1997년 새마을문고회에 입회한 이 부회장은 올해로 22년째 활동 중인 대연1동

새마을문고의 터줏대감이다. 사춘기 시절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책을 많이 읽고 접하기 위해 새마을문고회에 가입했다.

좋아하는 책을 읽다보니 문고회와 문고에도 애정이 생겼고 나아가 문고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다.

“입회 초기에는 제대로 된 주민센터 건물도 아닌 빌라 밑 지하에 문고가 있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회원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위치

한 이곳으로 옮기고 난 뒤로는 건물도 새것, 책도 새것, 책상도 의자도 집기도 다 새것이라 회원들이 봉사할 맛이 납니다. 이용객들도 도서관을 찾는 맛이 난다고 해요.”

이 부회장을 비롯한 12명의 문고 회원들은 썬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가꾸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순번을 정해 교대근무 형식으로 봉사하고 있다. 7,500여 장서 정리와 이용객 관리, 도서관 환경 정비 또 이용객들을 위한 행사 추진 등은 모두 문고회 봉사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대연1동위원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인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몸담고 있는 동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동네로 가꾸기 위해 꾸준한 봉사할 예정이다.

### 복지시설 소식

####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8월 9일 말복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600여명의 건강을 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며 삼계탕 대접 행사를 열었다.

#### 성인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산시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동지원으로 성인발달장애인 실제 생활권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세상품앗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 마트, 은행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응용훈련과 장애인들을 도와줄 이웃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위더스 공원음악회’ 개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19 위더스 공원음악회’가 9월 26일(목)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남구장애인복지관 앞 평화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KNN <쏘! TV유랑극단> 출연진과 함께 하는 음악회, 치킨·콜라 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관람료 무료, ☎628-1291

#### 어르신 돌봄서비스 안내

지계골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 인지, 간호 등의 서비스 및 등·하일 차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9~18시(주말 및 공휴일 휴관)이며 이용료 문의와 신청은 ☎647-0131, 0136

#### 아동 통합복지 서비스 안내

지계골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할 성장발달을 위해 급식지원 및 보호, 교육, 문화, 심리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의 통합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계골 복지관 3층에서 평일 10~19시(주말 및 공휴일 휴관)에 운영되며 문의는 ☎647-0136로 하면 된다.

#### ‘좋은이웃들’ 봉사자 모집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좋은이웃들 사업’의 봉사자를 모집한다. 상시 모집하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지역주민 누구나 도움이 손길에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복지관으로 알려주면 된다. ☎647-3655

##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프로그램 ‘대인기’



드림스타트 슈퍼 방학 프로그램 ‘2019년 드림이 생존수영 교실’.

방학은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동들이 한층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남구 드림스타트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7~8월 두달에 걸쳐 ‘슈퍼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슈퍼 방학 프로그램은 안전, 건강, 꿈, 힐링, 취미, 교육의 6가지 테마별로 진행됐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드림이 119소방안전체험, 튼튼한 치아만들기, 동병하치로 면역력 UP’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초등 6학년 아동들은 ‘다잡(job)아라’로 꿈을 향한 직업체험 여행을 떠났다. 경남 사천으로 ‘와글와글 농장체험’을 다녀오고 ‘드림가족 신나는 요트체험’으로 아동

들은 자연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신나는 k-pop 댄스배우기 ‘YOU CAN DANCE’와 ‘참방참방 여름 수영교실’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아동들의 취미활동을 도왔다. 또한 식사예절과 영양교육을 놀이식으로 풀어낸 ‘드림이 푸드아트 요리교실’과 ‘드림이 올바른 성교육’으로 방학동안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알찬 시간을 보냈다.

돌봄이 든든한 남구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 마련된 이번 ‘슈퍼 방학 프로그램’에는 드림스타트 아동 총 300여명이 참여했다. 남구 드림스타트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동들에게 다채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 온 정 을 나 뉘 주 세 요

## 무너져가는 집에 혼자 사는 명희 어르신

“차라리 천장이 무너졌더라면 천장에라도 가면 되는데...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을 하니 두렵습니다.”

명희어르신(가명, 71세)은 가족들과 부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부산 토박이입니다.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고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장에서 일하며 가장으로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보아야했습니다.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했기에 흥기가 훨씬 지난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아 서로 갈등이 생겼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식당 등지에서 일하며 혼자 생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생들도 각자 가정을 이루었지만 다들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머니께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하여 명희어르신은 살던 곳을 정리하고 어머니가 홀로 지내는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랜 지병을 앓다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사이 명희어르신도 고혈압, 빈혈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어머니가 생전에 계약한 전셋집입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는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몇 년 전부터 누수가 심해지고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썩새가 보여 쇠기둥을 구해다가 천장을 받쳐놓고 생활하였습니다. 화장실도 없어 집 근처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은 수년째 연락두절에 행방불명으로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수없이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고 있던 차에 지난 7월 장마와 태풍 ‘다나스’로 폭우가 내려 안방 지붕이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다치지 않았지만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현재는 방 안의 오래된 냉장고로 무너져가고 있는 천장을 겨우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명희어르신의 이러한 딱한 사정을 듣고 지역자원을 동원해 지붕수리를 지원했으나 또 다른 방과 현관 등에도 이상조짐이 느껴져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은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날까봐 두려움에 잠을 설치며 더 이상은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가장 따뜻한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곳



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명희어르신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마련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기다립니다.

### ♥ 성공 감사합니다

2019년 8월에 게재된 지현씨 사연에 대하여 ○○○온정님 5만원, ○○○온정님 20만원, ○○○온정님 2만5천원, ○○○온정님 10만원, ○○○온정님 5만원, ○○○온정님 3만원, ○○○온정님 5만원을 지원 써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 도움 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607-4870

(주민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부산은행 315-01-000297-0

(예금주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자명 뒤에 '온정'을 붙여주시면

머췌 감사하겠습니다. (예시-홍길동정)

###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용호4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구청장과 함께하는 주민자치교실-생활 속의 한방약학' 수업을 실시했다.



용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월 14일 관내 경로당 10곳을 방문해 수박을 전달하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감만2동 목요일 주민자치프로그램 '나눔 뜨개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직접 만든 수세미, 장갑, 목도리 등 수공예품을 홀로어르신들께 전하고 있다.



우암동 자원봉사캠프는 지난 8월 1일 홀로어르신 30세대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반려식물과 꽃고추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문현1동 마을건강센터는 지난 8월 14일 65세 이상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3월~8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2019년 치매예방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문현2동 금융단지주요소는 지난 8월 27일 관내 경로당 11개소 및 저소득가정 300세대에 영양가득 편육 도시락을 후원했다.



문현3동 지난 8월 12일 관내 경로당 10개소를 찾아 어르신들께 수박과 생수를 전달하고 냉방기를 점검하는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문현4동 한국자유총연맹 문현4동분회는 지난 8월 10일 '사랑의 삼계탕 나눔 DAY' 행사에서 어르신들께 삼계탕 100그릇을 대접했다.